

#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이 경숙(이화여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 155

본 논문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다양한 관계유형을 검토하면,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바람직한 관계 모형을 위한 열린 자세, 문화적 소통의 길을 열고자 한다. 기독교는 유대교적 뿌리에서 나온 종교이며,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책들이다. 한국 기독교는 폐쇄적 우월성을 극복하고 타자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

##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sup>1)</sup>

-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

---

이 경숙 | 이화여대

### 1. 들어가는 말

유대교나 유대인에 관한 질문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문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오늘의 주제가 그렇게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사를 보면, 유대인 문제가 유럽 문화 전반에 골고루 스며들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 문학의 배후에도, 미술사를 보아도, 음악사를 보아도, 건축사를 보아도 유대인과 관련된 문제들은 언제나 등장한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부활절이나 수난절이 다가오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의 후예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길을 나설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필자가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유럽

---

1) 이 글은 2008년 10월 31일 이화여대 이화학술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화사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왜 유대인 문제가 유럽 문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그렇게 박해하고 탄압했어야 했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택하고 있으면서, 구약 성서를 자신들에게 제공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을 그렇게 박해하고 탄압하고 말살시키려고 했을까?

1933년 나치즘에 동조했던 ‘독일 기독교인’들은 구약 거부의 논리를 넘어 서서, 독일 나치즘의 민족 사회주의에 근거한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를 넘어 유대인 학살이라는 논리로 발전시켰다.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지우고, 게르만의 역사와 문화가 구약 성서를 대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의 건국을 가져왔고, 아직도 근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으로 근동 지역의 화약고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구약 학도로서, 여성 신학도로서, 나이가 들어 갈수록, 9.11 사태 이후,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세 종교에서 모두 구약 성서를 경전 혹은 경전에 버금가는 책으로 삼고 있으면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도 불사하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상생하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가 1974년에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에르랑겐 대학교의 구약 교수였던 게오르그 포러 교수가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사실이 구약 성서 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그 당시 많은 독일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의 개종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불쾌해 하였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며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것을 보면, 포러 교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구약 성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진다. 기독교인들의 절대적 우월주의를 생각하게 되거나, 혹은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사건을 생각하면, 과연 기독교의 우월감과 독선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거기에 암묵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모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살과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

장 우월적인 종교라는 점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실 문제는 종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 2.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관계를 보는 여러 유형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연속과 단절의 관계는 곧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과 단절의 관계이다. 유대교는 구약 성서만 경전으로 삼고 있으나, 기독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동시에 경전으로 택하고 있다. 두 종교의 소통 가능성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두 성서의 상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sup>2)</sup> 한국 신학계나 교계 혹은 문화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주로 “예언과 성취”라는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 동안 학자들이 설명해온 바, 두 성서의 관계는 대개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3)</sup>

- 첫째: 거절 모델
- 둘째: 대조 모델
- 셋째: 그리스도 증거 모델
- 넷째: 상대화와 선별 모델
- 다섯째: 대화 모델

첫째, 거절 모델은 구약은 폐지되고 기독교 경전에서 빼야 된다는 주장이다. 구약 성서는 유대교의 경전이며, 유대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더욱이 그 내용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구약 성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므로 폐지되어

2) 이 문제에 관해서는 로즈메리 류터, 「신앙과 형제 살인. 반유대주의의 신학적 뿌리」 (장 춘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A. H. J. Gunneweg, *Vom Verstehen des Alt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GAT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Ch. Dohmen/G. Stemberger, *Hermeneutik der Juedischen Bibel und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96) 참조.

3) 2004년 9월 감신대성서학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강연 = F. Crüsemann, “Ich glaube an den Gott Israels,” ders, *Christliche Hermeneutik des Alten Testaments*, 1. Das Verhältnis von Altem und Neuem Tstament - Bisherige Modelle und die Suche nach einem neuen Ansatz, 1-18쪽.

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은 기독교에 아주 뿌리 깊고 오래된 것으로, 이 입장의 대표자는 마르시온이다.<sup>4)</sup> 플라톤의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마르시온은 세상을 물질과 영혼의 두 세계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물질 세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주장이다. 야훼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고 위협과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우월하고 이 세상 밖의 낮은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시고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물질과는 상관없는 영혼의 하나님이고, 곧 그리스도 이시다. 율법적인 공의의 야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신약 성서에서 구약과 관련 있는 구절을 모두 빼고, 누가복음 일부와 바울 서신 일부만을 가지고 경전을 꾸몄으며, 또한 사적 교회를 144년에 새로이 설립하였다.<sup>5)</sup>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구약을 인용하거나 반영하고 있는 구절들을 대폭 삭제한 그런 성서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는 마르시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구약을 앞으로 집어넣고 신약을 뒤에 넣었으며, 유대 어휘를 그대로 두고 구약 성서를 포기할 수 없는 기초(바탕)라고 선언하였다.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유대 경전에 기초해서 성립된다고 선언한 것이다.<sup>6)</sup> 이 점이 분명하게 롬 11장 17-18절에 표현되고 있다. 즉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치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후 구약 성서는 이단 종파에서만 거부되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늘 반-유대주의 및 구약 성서 거부 움직임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4) H. Kraft, “Marcion,” *RGG*, 4. Bd. (Tübingen: J. C. Mohr (Paul Siebeck), 1963<sup>3</sup>), 740-742쪽; B. Aland, “Marcion/Marcioniten,” *TRE* 22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2), 89-101쪽; Ch. Dohmen/G. Stemberger, *윗글*, 142-144쪽.

5) H. Kraft, *윗글*, 741쪽;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dienbücher Theologie 1,1), (Stuttgart: Kohlhammer, 1996<sup>2</sup>), 12쪽.

6) E. Zenger, *윗글*, 13쪽; Ch. Dohmen/G. Stemberger, *윗글*, 142-144쪽.

둘째 유형은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속해 있는 대조 모델이다. 옛 것-새 것, 유대인-예수, 율법-복음, 부정-정결, 보복-은총, 레아-라헬, 사라-하갈 등으로 대조시킨다. 이는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잘 알려진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구약 성서는 폐지하면 안 되고 붙잡아야 한다.<sup>7)</sup> 그리고 그 이유는 복음이 그와 대립해 있는 율법을 통해서만 뚜렷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간 다르기는 해도 불트만도 이 모델에 속하는데, 계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이스라엘이 좌절되는 과정 속에서 종말론적 희망으로 변해간다는 점을 강조한다.<sup>8)</sup> 율법은 인간을 좌절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sup>9)</sup>

셋째 유형은 그리스도 증거 모델이다. 이에 의하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 한다.<sup>10)</sup> 시편에도 복음이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시편 71편 2절에서 '의'가 나오고, 롬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를 설명했다고 보았고,<sup>11)</sup> 피셔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말했고, 신약 성서에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한다고 보았다.<sup>12)</sup>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복음서에는 실제로 살아있는 반면, 시편에는 그냥 들어있다는 식이다.

넷째 유형은 상대화와 선별 모델인데, 구약 성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예수와 그리스도적인 것은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sup>13)</sup> 진화 모

- 
- 7) J. Gager, "Paul, the Apostle of Judaism," P. Fredriksen/A. Reinhartz (eds.), *Jesus, Judaism & Christian Anti-Judaism*,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56-76쪽.
- 8) R. Bultmann, "Weissagung und Erfüllung," ders, *Glauben und Verstehen*, 2. Bd,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52), 162-186쪽=C. Westermann (Hrg.),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München: Chr. Kaiser, 1960), 28-53쪽.
- 9) R. Bultmann, *율법*, 183쪽 = *Probleme*, 50쪽
- 10) 참조. F. Crüsemann, *율법*, 9-12쪽; H. Bornkamm, *Luther und das Alte Testament*,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48).
- 11) R. Prenter, *Der barmherzige Richter, iustitia dei passiva in Luthers Dictata super Psalterium 1513-1515*, (Kopenhagen: Universitetsforlaget, 1961). F. Crüsemann, *율법*, 10에서 간접 인용.
- 12) W. Vischer, *Das Christuszeugnis des Alten Testaments, I/II*, (München/Zuerich: Chr. Kaiser, 1934/42); 이에 대해 R. Rendtorff, "Christologische Auslegung als 'Rettung' des Alten Testaments. W. Vischer/G. von Rad (Hg.), *Kanon und Theologie. Vorarbeiten zur ein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81-93쪽.
- 13) J. Wellhausen, *Israelitische und juedische Geschichte*, (Berlin: Verlag Alter de Gruyter &

텔, 즉 몽학선생과 유형론적 해석이 모두 이에 속한다. 진화 모델에 의하면 구약은 신약을 위한 예비적 서술이고, 신약은 계시의 완성이자 실체이다. 구약 성서는 긍정적이지만, 신약 성서의 그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언과 성취’라는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모델은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속해 있다. 여기에 따르면 구약도 우수하지만 신약은 더 좋다.<sup>14)</sup>

다섯째 유형은 대화 모델인데, 위 네 모델들과는 대조된다.<sup>15)</sup> 주로 80년대 이후 독일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둘째, 셋째, 넷째 모델도 기독교 우월주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둘째, 셋째, 넷째 모델은 모두 신약 성서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근거해서 구약 성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의도 없이 읽는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폭넓은 관련성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들은 우선 신약 성서에서 또 초기 교회사에서 구약 성서를 얼마나 왜곡했는가를 밝힌다. 다시 말하자면 신약을 읽어보면 구약이 신약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이 구약으로부터 기록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의 빛에서 읽혀져야 한다. 이제껏 그리스도가 구약에 의해 증거 되고 예언된 것만 말했지, 구약, 즉 율법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반대의 증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구약의 위치를 신약 성서에 들어있는 그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와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 모델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필자는 신약 성서에 나타난 구약 성서를 살펴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Co, 1894, 1958<sup>9)</sup>, 161-193쪽; G. E. Lessing, *Die Erziehung des Menschengeschlechtes*, 1780. F. Crüsemann, 윗글, 13쪽에서 간접 인용.

14) G. von Rad, "Typologische Auslegung des Alten Testaments," *Evangelische Theologie* 12. Jahrgang.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2/53), 17-33쪽; W. Zimmerli, "Verheissung und Erfüllung," *Evangelische Theologie* 12. Jahrgang.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2/53), 34-59쪽; F. Hesse, "Zur Frage der Wertung und der Geltung alttestamentlicher Texte," *Festschrift zum 70. Geburtstag von Professor F. Baumgaertel. Erlangerer Forschungen, Reihe A, Bd. 10.* (Universitätsbund Erlangen e. V., 1959), 74-96쪽. 이외에 다수의 논문이 C. Westermann (Hrg.),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0)에 수록되어 있다.

15) E. Zenger, 윗글, 19-21쪽; F. Crüsemann, 윗글, 17-18쪽.

### 3. 신약 성서에 들어 있는 구약 성서

예수 당시에 구약 성서는 유일한 경전으로,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높은 권위를 지녔다. 따라서 신약 성서 기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에 권위를 갖기 위해 자주 구약을 인용하였다. 학자들에 따르면 신약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역지로 구약 성서를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헬레니즘에서 유행하던 알레고리(Allegorese)이다.<sup>16)</sup>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사 7장 14절을 인용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동정녀 탄생 설을 위해 구약 성서의 헬라 번역본인 70인역을 따라 ‘젊은 여자’를 ‘처녀’로 읽고 있다. 또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위해 사 40장 3절의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를 알레고리로 읽었다.

그리고 롬 8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이라고 되어 있다. 롬 3장 3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신약 성서의 구절들은 모두 구약 성서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진술의 권위를 가지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모두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눅 16장 31절에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어, 부활 사건을 구약 성서와 관련시키고 있다. 눅 24장 25절에는 부활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눅 24장 44-49절에도 계속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이라고 되어 있다. 고전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사 계바에게 보이

16) R. Bultmann, 율법, 28-33쪽.



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가 신약 성서에서 얼마나 작위적으로 해석되었는가는 렘 31장과 그 해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렘 31장 31-34절은 “새 계약(신약)”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구절로서, 이 단락은 “그 때에”라는 단어와 함께 종말의 기쁨을 논하고 있다.<sup>17)</sup> 렘 31장 전체가 그런 종말의 기쁨을 논하는데, 31-34절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 구절은 새 계약, 곧 하나님이 미래의 어느 날에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쓰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새로운 계약을 약속하시는 구절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신학의 정점이고, 성서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붙잡고 믿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의 수령자는 이스라엘이지 기독교인은 아니다. 여기 나오는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지 이방인들에게 세울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옛 언약의 파기는 이스라엘인들의 잘못 때문이다.
2. 하나님은 그러나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3. 옛 언약의 파기는 이스라엘에 해당되고, 새 언약의 체결은 기독교인

17) 신약성서라는 용어도 바로 이 “새 계약”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교인들을 위해서 라는 이분법은 구약성서의 의도에 맞지 않다.

그러나 신약 성서 골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적 순종을 주는 능력은 옛 아담의 유한성을 폐기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적 할례는 “육체의 몸을 벗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삶의 새로운 할례로 일어난다(골 2: 11-12). 이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 구약을 폐기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내적 순종은 모세의 계약보다 오직 예언자 예레미야가 약속해 주었던 “새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새 계약”의 대상을 기독교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한편 히브리서(히 8: 8-13)에서도 예수의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렸으되 ...”로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의 낡고 쇠한 것과 기독교인들의 새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새 언약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약에 있어서도 새 언약, 즉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이 은총이 예수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인들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옳다고 하는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sup>19)</sup>

사실 구약과 신약 성서를 대조적으로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징벌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 개념도 구약 성서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를 권유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를 권유한다는 주장도 무리이다. 왜냐하면 레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 5장 43-44절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18) 로즈마리 튜터, 윗글, 214-218쪽.

19) J. Gager, 윗글, 56-76쪽.

이 구절로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구약은 공적 사상, 즉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은 은총 사상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구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구약에서도 조건 없는 선택이 먼저였고, 나중에 율법을 수여 받았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구약 성서에도 궁극적 목표는 세계의 구원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창 12: 1-3; 사 2: 2-4; 미 4: 1-4).

초대 교부들은 구약은 신약의 어머니이자 교사(mater et magistra Novi Testamenti)라고 보았다. 히에로니무스(Hieronymus)는 구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했는데,<sup>20)</sup>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서를 읽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대화 모델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반-유대주의 성격을 띠고 그렇게 적대적으로 해석 되었을까? 예수 자신부터 반-유대주의였을까? 이제 이런 물음에 답을 시도할 것이다.

#### 4. 예수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복음서

기원전 202년 로마가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동북 지중해 연안에서 외교적 군사적 활동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내부 분열이 심각하였다. 이 때 하시딤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예언적이고 종말적 유산으로 역사 저편에 나타나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죽은 자가 축복이나 저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상, 결정론, 역사의 주기적인 분류, 마지막 시대의 계산, 인자, 천사론 등이 이 시기에 유행하고 있었다. 기원전 1-2세기의 유대 종파들은 다음과 같다:<sup>21)</sup>

- a. 사두개파: 하스몬가와 함께 혼란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적 위치를 누리고 있었음. 로마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음
- b. 에세네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운 손에 의해 통치 받으니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사막에서 율법을 기록하면서 칩거함, "선한

20) E. Zenger, *율글*, 14쪽에서 간접 인용.

21) 하워드 클락 키, *(서중석 옮김), 신약성서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79-104쪽; 로즈메리 류터, *율글*, 61-71쪽.

영”이 “악령”과 대결하여 우주적인 싸움을 싸움.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상도 여기서 나옴.

- c. 바리새파: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 성서학자,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자신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땅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불결한 자들로부터 분리. 이러한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덕적으로 엄격한 행동과 일관된 진지한 태도 때문에 인기. 이들의 성서해석은 성서의 화석화를 막아줌. 문서로 된 율법과 동등한 구전의 교훈을 이용하여 새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새롭게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임. 내세에는 큰 관심이 없고 부활을 믿음. 회당에서 활약.
- d. 열심당: 민족적인 정치적 투쟁을 함, 그러나 수동적에서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에 처함.

한편 기원전 40-4년 로마 황제 카이사르 시대에 헤롯이 등장했다. 로마 황제에 충성하고 억척스런 헤롯은 수많은 갈릴리 반동분자들을 처형하고 독재자로 등장한다.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은 그를 싫어했지만, 헤롯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헤롯은 로마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답게 교육과 건설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 헬레니즘의 교육 이념이 로마 제국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론이 유대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sup>22)</sup> 이 때 유대인들은 종교세는 물론, 헤롯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예수의 탄생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대략 주전 12-2년경이라고 추정한다.<sup>23)</sup>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는 결코 반-유대주의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철저히 구약 성서를 정경으로 믿는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라기보다는 유대인이고, 이적을 행하는 자이고, 설교자였다. 예수는 자신을 유대 왕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았고, 새 종교를 창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24)</sup> 그는 30년경에 십자가

22) P. Fredriksen, “The Birth of Christianity and the Origins of Christian Anti-Judaism,” P. Fredriksen/A. Reinhartz (eds.), *Jesus, Judaism & Christian Anti-Judaism*, 19-20쪽.

23) P. Pawlowsky, *Christentum*, (Wien: hpt-Verlagsgesellschaft, 1995), 1-21쪽; 참고, 하워드 클락 키이, *윗글*, 142-297쪽.

24) E. P. Sanders, “Jesus, Ancient Judaism, and Modern Christianity: The Quest Continues,” P. Fredriksen/A. Reinhartz (eds.), *Jesus, Judaism & Christian Anti-Judaism*, 31-55쪽.

에서 처형되었고, 복음서 기자들은 적어도 35-40년 이후에 그에 관하여 기록하기 시작하였다(마태복음 80-90년, 마가복음 65-70년, 누가복음 80-90년, 요한복음 90-100년).<sup>25)</sup>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뒤, 실망한 그룹들이 흩어지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최초의 기독교 문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50-51년). 바로 이 20년 사이에 굉장한 일이 생긴 셈이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 생전에 추종자가 많았다고 보고, 또 이 추종자들은 그를 예언자 이상이자 메시아로 보았다고 주장한다.<sup>26)</sup>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열성당원파도 거리를 두고, 에세네파와도 거리를 두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이자 치유자로 활약한 듯하다. 그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정치적 사회적 혁명가는 아니었다. 놀라운 것은 상류층이나 하류층을 모두 포용한 것이고, 회개나 절제를 강조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먹고 마시는 자”<sup>27)</sup>로 칭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산 사람이 예수이다. 복음서에서는 그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로마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죽인 것으로 그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아마도 빌라도와 사두개파의 합작일 듯하다. 십자가 처형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그들의 희망은 그의 죽음으로 없어지지 않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도래할 하나님 왕국의 조건으로 이해하면서 새 종파가 탄생한다. 그리고 이 새 종파는 본래 유대교의 한 종파였다.<sup>28)</sup>

이 새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가 설교한 하나님 나라가 그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즉 인간 예수와 그의 메시지를 분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예수를 완전한 인간이자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보았다.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예수는 부활했으며, 곧 다시 와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부활한 예수는 옛날의 삶 속에 온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 왕국에 살고 계시

25) P. Pawlowsky, 윗글, 1-21쪽; 참고, 하워드 클락 키이, 윗글, 142-297쪽.

26) P. Pawlowsky, 윗글, 23-26쪽; 참고, G. 타이센 (김 명수 역), 「원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34-171쪽.

27) P. Pawlowsky, 윗글, 26쪽.

28) E. P. Sanders, 윗글, 54-55쪽; P. Pawlowsky, 윗글, 22-23쪽; 로즈메리 류터, 윗글, 106쪽.

고(부활절), 지상에 왔다가 승천하셨다(그리스도 승천). 성령의 체험이 묘사되고(오순절)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 때 구약 성서의 내용은 예언으로 해석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는 증명서로 바뀌게 되었다. 이 종파는 곧 새 종교가 되었다.<sup>29)</sup> 4세기에 삼위일체설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면서, 새 종교가 철학적으로도 매력적인 종교가 되었다.<sup>30)</sup> 그에 붙는 칭호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인자”(단 7), “하나님의 종”(사 53), “예언자”, “랍비”, “하나님의 아들”(시 2)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이밖에 복음서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도 문제가 된다. 계몽주의 이후,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는 사망한 지 20-5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것들로 밝혀지면서, 소위 역사적 예수를 찾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를 논할 경우, 학자들은 대개 복음서에서 각자 견해대로 이상적 인간 예수를 찾아서 이를 역사적 예수라고 말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가령 근대 서구 학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제의에 관한 것, 즉 정결법 문제 등에는 예수가 관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결 의식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종교적 관습으로 예수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바리새파의 관습을 거부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정결법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눅 17: 11-14; 레 14: 4, 10, 21-22). 성전 소탕 이야기(막 11: 15-17; 마태 21: 12-13; 눅 19: 45-46; 요한 2: 14-16)도 성전을 없애려는 것이나 성전 제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의 정책을 비난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는 결코 반-유대주의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철저히 구약 성서를 정경으로 믿는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다.<sup>31)</sup> 눅 2장 41-46절에 보면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으로 살아온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유럽 해석자들은(가령 서양 화가들) 언제나 가르치는 백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그리고, 또 그가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완벽한 왜곡이다.<sup>32)</sup> 역사적 예수와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 그

29) P. Fredriksen, 윗글, 8-30쪽; 로즈메리 루터, 윗글, 133-160쪽.

30) 로즈메리 루터, 윗글, 161-254쪽.

31) E. P. Sanders, 윗글, 34-41쪽.

32) F. Crüsemann, 윗글, 3-4쪽.

리고 교회사에서 해석된 예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 5. 신약 성서 해석의 반-유대주의 배경과 알레고리 해석의 등장

초대 기독교 안에는 여러 계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상존하였다. 이 당시의 종교들은 모두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선-악, 물질-영혼, 종교-신학 등으로 이원론적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두 궁극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로마 그리스의 철학이나 종교와 쉽게 결합될 수 있었다. 단지 각 계파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새로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는 시점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1세기 중반에 공인된 경전은 70인역 뿐이었다. 따라서 구약 성서의 헬라이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대한 견해가 계파마다 서로 달랐다. 130년경의 신학자 발레티누스<sup>33)</sup>는 창세기의 신은 물질을 만든 신이므로 열등하다고 보았다. 이 열등한 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금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창세기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The true High God)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열등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육체적 의식 즉 할례, 정결법 등에 얽매어 있으므로 나쁘다고 보았고, 구약 성서의 헬라이어 번역인 70인역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계시된 영혼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해석하였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의 책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시온은 발레티누스의 영향을 받아 예수는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sup>34)</sup> 물질, 육체, 죄를 벗어나 죽음 뒤에는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영혼의 왕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시온은 육-영, 율법-복음, 공적-은총, 죄-은총, 할례-세례 등 바울이 대조시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극화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관계가 없고 적대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70인역도 유대인의 책으로 마르시온은 완전히 거부하였다. 그는 기독교 경전으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을 택했다.<sup>35)</sup> 그러나 그는 바울이 유대교에 관해 긍정적으로 말

33) P. Fredriksen, 윗글, 23-24쪽.

34) P. Fredriksen, 윗글, 24-25쪽.

35) 각주 4 참조.

한 모든 부분을 삭제하였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다른 기독교인들도 존재했다.<sup>36)</sup> 이들은 창조주와 최고신이 관계가 있고 창세기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시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율법이나 교회 배후에는 같은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윗의 집안에서 왔고, 70인역은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유대적”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육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성도의 마지막 구원은 육체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구나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가 육체적으로 돌아오시면, 왕국이 오고, 예수와 그의 성도들은 함께 만나서 1,000년간 안식일을 축하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약속한대로 잔치를 한다고 믿었다. 물론 이들도 유대교를 폄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성서, 즉 구약 성서는 인정하였다.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성서는 옳다는 것이다. “영혼으로 읽으면”, 즉 “알레고리로 읽으면” 말이다. 할례는 도덕적 할례를 의미하고 정결 의식은 실제로는 세례를 의미한다. 음식에 관한 법도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알레고리로 보면서 성적 문제들을 다룬다. 산토끼는 그가 성을 좋아해서 금한 것이고, 곧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유대인이었다. 이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이 강박하고 육체적이고 둔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도 죽였다는 것이다. 예수는 로마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죽였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렸으나, 이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추방하였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기원 후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 추방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 반-유대주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바울도 이 때 잘못 해석되었다. 기원 후 70년과 132-135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란과 이후 역사는 이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추방했고 예루살렘으로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sup>37)</sup>

36) P. Fredriksen, 율글, 25-29쪽; 로즈마리 튜터, 율글, 161-254쪽.



이 그룹(Orthodox)이 기독교에서 주류로 승리하였고, 이레네우스, 저스틴,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등이 이에 속했다.<sup>38)</sup> 패자는 마르시온과 발렌티누스였다. 여기서 승리하였다는 말은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후원한 교회라는 말이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서를 알레고리로 해석하였고,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였다.<sup>39)</sup> 312년 이후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것을 보면 이 당시 얼마나 많은 계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종교적 우월성을 놓고 투쟁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중세 이후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구약 성서를 전수 받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역사를 반복하였다.<sup>40)</sup> 중세 초반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종이나 추방이냐’를 강요했지만, 중세 중반에는 ‘개종이나 죽음이냐’로 강요하였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삶은 소외, 박해, 추방, 학살 등의 반복이었다.

## 6. 나가는 말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모두 역사를 강조하고, 선택, 은총, 계약, 구원, 대속, 원죄 등 용어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축제(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도 같고, 종말적 기대도 같으며, 메시아, 인자, 선생, 하나님 아들 등 칭호도 같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등 히브리어 어원을 갖는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예배 때 신약과 구약에서 한 구절 씩 읽는 기독교 전통은 예언서와 시편에서 한 구절씩 읽는 유대교 전통에서 나왔다.

이렇게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유대인의 한 훌륭한 예언자이고 선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왕 혹은 메시아는 아니다. 이밖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선재설 혹은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기독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생겨난 종교이다. 따라서 유대교는 기독교와 비교해서 열등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교사이며 어머니 같은 종교이다. 바울이 말하듯이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뿌리에서

37) P. Fredriksen, 윗글, 28쪽; 로즈메리 류터, 윗글, 232-236쪽.

38) P. Fredriksen, 윗글, 27쪽.

39) 로즈메리 류터, 윗글, 238-254쪽.

40) 로즈메리 류터, 윗글, 289-301쪽.

나온 가지이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열등하고 폐지되어야 할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룹은 유대인들 중에 한 종파를 형성했고, 유대인들과 서로 그 내부에서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정통 해석자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초기 기독교가 유대종파 사이에서 배척 당하고 저지 당하는 어려운 분위기를 반영한다.<sup>41)</sup>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복잡한 초기 기독교적 상황은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잘 볼 수 있다. 여자를 억압하는 발언을 했다가 또 평등하다는 발언도 하고, 구약을 극복했다고 했다가 또 구약을 완성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을 배척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신약 성서 자체가 우리를 혼동하게 한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반-유대주의 진술들은 원래 유대교인들 사이의 분파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했던 비난들이다. 이 비난이 나중에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반목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역시 해석이 문제인 것이다.

성서는 다양한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심포니와 같은 책들(Biblia 복수형)이다. 성서 내용의 다양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고, 이들의 통일성은 그 기능에 있다. 함께 어울리는 교향악 같은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구약은 신약의 서문도 아니고 부록도 아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책들이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의 특징과 긴장과 ‘자신만의 목소리’와 ‘자신만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기독교는 유대교나 다른 종교의 ‘목소리’와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의 우월성의 근거는 그들

---

41) 로즈메리 류터, *윗글*, 112-114쪽.

의 삶과 종교적 실천에서 찾아야 한다. 결코 종교 자체에서 찾을 수는 없다. 기독교인은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의 구원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예수처럼 자신들의 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폐쇄적인 우월성은 기독교는 물론 종교 전반에 대한 염증만 증가시킬 뿐이다. 한국 기독교가 폐쇄적 우월성을 극복하고 타자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 7. 참고문헌

- Kee, H. C., 「신약성서 이해」 (서 중석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Ruether, R., 「신앙과 형제 살인. 반유대주의의 신학적 뿌리」 (장 춘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Theissen, G., 「원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김 명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Aland, B., "Marcin/Marcioniten," *TRE* 2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2), 89-102쪽.
- Bultmann, R., "Weissagung und Erfüllung," ders., *Glauben und Verstehen*, 2. Bd.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52), 162-186쪽=C. Westermann (Hrg.),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München: Chr. Kaiser, 1960), 28-53쪽.
- Dohmen, Ch./G. Stemberger, *Hermeneutik der Jüdischen Bibel und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96).
- Fredriksen, P., "The Birth of Christianity and the Origins of Christian Anti-Judaism," P. Fredriksen/A. Reinhartz (eds.), *Jesus, Judaism & Christian Anti-Judaism*,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8-30쪽.
- Gager, J., "Paul, the Apostle of Judaism," P. Fredriksen/A. Reinhartz (eds.), *Jesus, Judaism & Christian Anti-Judaism*,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56-76쪽.
- Gunneweg, A. H. J., *Vom Verstehen des Alt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 (GAT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 Hesse, F., "Zur Frage der Wertung und der Geltung alttestamentlicher Texte," *Festschrift zum 70. Geburtstag von Professor F. Baumgärtel Erlangener Forschungen, Reihe A*, Bd. 10., (Universitätsbund Erlangen e. V., 1959). 74-96쪽.
- Kraft, H., "Marcion," *RGG*, 4. Bd. (Tübingen: J. C. Mohr Paul Siebeck, 1963), 740-742쪽.
- Pawlowsky, P., *Christentum*, (Wien: hpt-Verlagsgesellschaft, 1995).
- Prenter, R., *Der barmherziger Richter, Iustitia dei passiva in Luthers Dictata super Psalterium 1513-1515*, (Kopenhagen: Universitetsforlaget, 1961).
- Rendtorff, R., *Kanon und Theologie, Vorarbeiten zur einer Theologie des Alten*

-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 Sanders, E. P., "Jesus, Ancient Judaism, and Modern Christianity: The Quest Continues," P. Fredriksen/A. Reinhartz(eds.), *Jesus, Judaism & Christian Anti-Judaism*,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31-55쪽.
- Vischer, W., *Das Christuszeugnis des Alten Testaments*. I/II. (München/Zürich: Chr. Kaiser Verlag, 1934/42).
- Von Rad, G., "Typologische Auslegung des Alten Testaments," *Evangelische Theologie*, 12. Jahrgang,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2/53), 17-33쪽=C. Westermann(Hrg.),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0), 11-17쪽.
- Wellhausen, J., *Israelitische und jüdische Geschichte*, (Berlin: Verlag Alter de Gruyter & Co, 1894, 19589).
- Westermann, C.(Hg.),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0).
- Zenger, E.,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dienbücher Theologie 1,1*, (Stuttgart: Kohlhammer, 1996).
- Zimmerli, W., "Verheissung und Erfüllung," *Evangelische Theologie*, 12. Jahrgang,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2/53), 34-59쪽=C. Westermann,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0), 69-101쪽.

## 검색어

반유대주의  
 마르시온  
 율법과 복음  
 알레고리적 해석  
 새 언약(렘 31장)

투고일: 2009년 1월 21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25일

---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ity and Judaism

---

**Kyung Sook Lee**,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We, all Christians, know that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both are the canons and the words of God. But many Christians are accustomed to interpret the Old Testament as the one inferior to the New Testament and is replaceable by the New Testament. There are 5 model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but most of the Christians prefer to use the "contrast model", namely, "the Old versus the New", "Law versus Gospel", "Wrath versus Mercy", "Leah versus Rachel", "Hagar versus Sarah" and etc. In the contrast model, preference of the New Testament/Christianity and hostility against the Old Testament/Judaism is clearly expressed or deeply implicated. Although no Christian will admit that he/she is against the Old Testament or rejects the God of Israel, it is true that Christians have a tendency -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 to reject or to look down the Old Testament. It is a great contradiction that Christians use the Old Testament as the canon on the one hand and reject the Jews on the other hand. The Old Testament is the religious treasure of the Judaism which has been written by the Jews and for the Jews and have been adopted by Christians later. What was the

background of Anti-Judaism? How can we explain the Holocaust?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explore the roots of the anti-Judaism in the history of the Christianity and try to suggest a way to interpret the Old Testament properly.

Apparently Jesus was a Jew. The crowds who heard him, his earliest disciples, the apostle Paul - all were Jew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urvey of Jesus of Nazareth, Jesus had neither intention to reject the Old Testament, nor to establish a new religion. Yet, there were many different groups of Jewish people about this time. The heated polemic against different types of Jews has been unfortunately interpreted as the polemic against the Judaism itself. As Christianity grew, it became a community conspicuous for not living according to the Jewish law and traditions. And Marcion, who lived in the second century(85-159 A.D.) and was influenced by Valentinus(130 A. D.), was the father of the anti-Judaism in the church history. The root of his teaching lies in the Pauline antithesis of Law and Gospel. But he exaggerated this contrast to distinguish the Creator from the true God. Finally the Christian church declared that Marcion was heretic and condemned his church as heretical. Still, there has been always the followers of Marcion in the Christian church from the early Christian era to Holocaust. The real cause of anti-Judaism can be found in the allegorical theories of Justin Martyr, Tertulian, Irenaeus, Hippolytus. For them, "the Old Testament is good, but the Jews are bad". In this ambiguous theories and the interpretations of the Old Testament, there were seeds to rejection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Jews.

#### **Keywords**

Anti-Judaism • Marcion • Law versus Gospel  
Allegorical interpretation • New Covenant (Jer. 31)

